

데이터분석을 통한 확대투사원리의 효율성 제고

주 치 운*

A Reconsideration on the Efficiency of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Chi-Woon Joo*

요 약

본 연구는 다양한 언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소주의에서의 확대투사원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둔다. 확대투사원리는 두 가지 원리에서 도출되는데, 하나는 표준이론에서의 투사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위치는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요건을 근거한다. 이 두 원리가 하나로 병합된 확대투사원리는 이후에 계속해서 그 개념이 변한다. 최소주의 출현 이전에는 격에 의존적이었으나, Chomsky(1995)의 최소주의 하에서는 범주자질 [D]의 특성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치 도치 구문, 허사 there 구문, 결속이론과 같은 구문에서의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굴절어구의 지정어 위치는 최대로 투사된 어휘항목에 의해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 Keyword : 데이터 분석, 확대투사원리, 범주자질, 최소주의

Abstract

Main concern will be put at suggesting an alternative idea about the basic notion of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henceforth, ECP) which has been slightly changed since the initial appearance of the EPP. The EPP had been dependent on Case and theta-role under the era of the early generative grammar, whereas it was reduced only to the categorial feature [D] under the minimalism. Various data such as 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s, there-expletive constructions, and sentences related to binding theory will be dealt with to suggest a plausible alternative idea. As a conclusion, it will be attested that the SPEC position of the inflectional clause should be filled with a maximally projected lexical item. This conclusion will be reached by analyzing lots of linguistic data.

▶ Keyword : Data analyses,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categorial feature, Minimalism

• 제1저자 : 주치운 교신저자 : 주치운

• 투고일 : 2011. 10. 18, 심사일 : 2011. 10. 20, 게재확정일 : 2011. 10. 24.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부교수(Dept. of Hotel Management, Inha Technical College)

I. 연구의 배경

Chomsky(1981)의 “모든 절은 주어를 필요로 한다.”라는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는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표준이론에서 의미역(theta-role)과 관련된 투사원리(Projection Principle)와 Chomsky(1981)의 주어가 없는 문장은 비문임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구 구조 규칙(Phrase Structure rule)을 근거한 확대투사원리는, 이후에 Chomsky & Lasnik(1991)의 원리 및 매개변인 이론(Principles and Parameters)과 Chomsky(1993)의 최소주의 이론(Minimalist Theory)에서 격(Case)과 일치(Agreement) 점검을 근거로 한 기능 핵의 자질(features) 점검 요건으로 발전했다. 즉, 영어의 시제소 T는 주격자질이 강해서 자질점검을 위해 [DP]를 지정어의 위치로 유인하여 확대투사원리를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PP자질과 관련하여, Chomsky(1995)는 이전의 격 자질 점검대신에 EPP자질을 [D]자질로 간주하여 시제소 T에 범주자질인 [D]의 강 자질(strong feature) 점검을 위해 확대투사원리가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homsky(1999,2000)에서는 시제소 T의 [D]자질을 제거하고 인칭자질([person feature])과 연계한 EPP자질을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제소 T가 EPP자질을 가지고 있고 이 자질은 비 해석성 자질이기에 때문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으로 삭제를 위해 TP의 지정어 위치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EPP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확대투사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EPP자질설정과 관련하여 최근의 많은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EPP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의 다른 많은 원리들과 상당부분 잉여적 성격을 보일 뿐만 아니라, EPP구성의 불명확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EPP에 대한 성격이 정확히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EPP의 적용층위(application level)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Lasnik(2002)에서처럼 도출단계에서 충족되는 요건 인지, Chomsky(1995:123)의 ‘항시조건(Everywhere Condition)’으로 적용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더 나아가 Lasnik(2001)과 Chomsky(1999,2000)는 EPP를 구조적 요건으로서 재해석함으로 EPP가 출현할 당시의 원점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일부학자는 EPP를 의미적 요건으로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EPP의 존재와 본질, 그리고 보편문법에서의 구조적 역할에 대한 의문점을 가중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준이론에서 자질점검

이론에 이르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날씨 술어구문(weather-predicate constructions), 허사구문(expletive constructions), 위치 도치구문(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s) 그리고 인상동사(raising verb) 구문 등과 같은 언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 상태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초기최소주의 관점에서 EPP

2.1 투사원리와 주어요건

Chomsky(1981)의 “모든 절은 주어를 필요로 한다”라는 확대투사원리는 원래 의미역과 관련하여 투사원리와 모든 구는 도출단계에서 굴절어구의 지정어자리가 채워져야 한다는 구 구조 요건에서 출발하게 된다. 투사원리에서는 어휘항목의 의미역과 관련한 선택적 제약(selectional requirements)은 통사표상(syntactic representation)의 모든 단계에 투사되어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 심층구조(D-structure)가 의미역 특성(θ -properties)의 표상으로서, 심층구조에서 실현되는 모든 의미역 특성은 표층구조(S-structure)와 논리형태구조(LF-structure)에서도 동일한 통사적 표상이 그대로 투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동사 V의 명사구 보어(NP-complement)가 심층구조에서 그 동사에 의해 대상역(theme θ -role)을 부여받게 되면, 투사원리에 의해서 표층구조와 논리형태구조에서도 그 명사구는 반드시 대상역을 부여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확대투사원리의 또 다른 요건은 모든 구는 도출과정에서 굴절어구의 지정어 위치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Chomsky(1993)에 의하면 이 요건은 시제소 T의 강 명사 자질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시제소 T의 자질은 표층구조에서 T의 지정어 위치에 자리한 명사구에 의해 반드시 T의 강 자질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의 강한 명사 자질이 점검되지 않고 논리형태(Logical Form; LF)에까지 남게 된다면 그 도출은 파탄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T의 강한 명사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명사구가 T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자질점검을 하게 됨으로서 주어 위치가 채워진다고 주장한다.

2.2 선택적 제약 조건의 문제

표준이론에서 의미역과 관련한 선택적 제약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초래된다. 선택적 제약에 근거한 투사원리는 날씨술어나 인상동사 등의 경우에 주어위치에 의미역이 부여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된다.

- (1) a. It is windy.
b. [It is likely [t to be windy].
- (2) a. [IP e seems [IP John to have left]].
b. [Johni seems [IP ti to have left]].

(1a,b)에서 날씨술어의 주어위치와 주어가 인상된 (2b)의 인상동사의 주어위치는 의미역이 부여되지 않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It과 John이 의미역 위치에서 비 의미역 위치(O'-position)로 이동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미역 부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1a)와 (1b)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가 채워지는 경우가 존재함으로 모든 구는 주어위치를 채워야 한다는 요구는 어휘항목의 선택적 제약조건과는 무관함을 입증하는 언어 테이터로 확대투사원리의 근거인 의미역의 당위성에 반하는 분명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확대투사원리에서 의미역이 배제된다면, (1)과 (2)에서 내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동인이 의미역 할당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에서는 내포문의 주어위치에서 주절의 주어 위치로 명사구를 이동하게 되는 동인으로 격 점검을 주장한다.

2.3 하위인접조건의 위반문제

Chomsky(1981)는 동사구의 지정어 위치는 명사구가 격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격 위치(Case position)가 아니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동사구의 지정어 위치에 있는 명사구의 격 점검을 위해 기능 핵인 굴절소(Inf)가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인 동사구(VP)를 가로질러 격 점검을 하는 것도 하위 인접조건(Subadjacency Condition)²⁾을 위반하게 되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Chomsky(1981)에서는 모든 명사구는 격 점검을 받아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문장은 비문으로 판정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어의 주어는 굴절소의 왼쪽위치에 나타나며 동사구의 지정어 위치에서는 격 점검이 불가능하므로 표층구조에서 굴절소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해야한다.

Chomsky(1981)의 격 점검을 위한 명사구의 이동주장은 아래의 (3a,b)의 예외적 격 표시 구문(Exeptional

Case-marking constructions; ECM)과 허사-there 구문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a. The FBI proved [IP few students to be spies].
b. There is likely [t to be someone here].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여 주절 동사 proved가 하위의 최대투사인 굴절어구 IP를 넘어서 격을 할당함에도 정문인 (3a)과 (3b)에서 상위절의 기능 핵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허사 there은 점검 되어야 할 주격(nominative Case)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포문의 지정어 위치에서 주절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³⁾ 확대투사이론에서 의미역과 무관한 한 것처럼, 격 점검도 예외적 격 표시 구문과 there-허사 구문에서 볼 수 있듯이 확대투사원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Chomsky(1995)는 확대투사원리는 격과 의미역이 아닌 범주자질[D](categorical feature [D])에 의해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III. 자질점검과 유인이론

3.1 비해석성 자질 점검과 EPP

최소주의에서 허사 there의 제휴어(associate)는 자신의 점검되지 않은 자질(unchecked features)의 점검을 위해 인상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4)의 구문을 살펴보자.

- (4) *there seem [(that) [John] is intelligent].

‘어떤 어휘항목이 이동 할 때는 그 이동으로 인하여 그 어휘항목의 형태론적 필요가 만족 될 수 있어야한다’는 이기원리(Greed)를 수용한다면, 제휴어인 John의 모든 자질들은 인상되지 않고서도 그 위치에서 이미 자질들이 충족됨으로서 주절의 위치로 이동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반면에, Chomsky(1995)는 (4)에서 허사 there은 주절 굴절소의 모든 자질들을 점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만약 허사 there이 굴절소의 모든 자질들을 점검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굴절소 Inf는 이동의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 없기 때문

2) “이동규칙은 한꺼번에 둘 이상의 장벽(barrier)을 건너서 적용 될 수 없다”라는 조건으로 하위인접 조건을 위반하면 그 도출은 문법성이 아주 낮은 문장으로 귀결된다.

3) there이 점검받아야 할 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허사 there은 점검되어야 할 격이 없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근거한다.

이다. 만약 there이 굴절소의 모든 자질들을 점검 한다고 가정하면, (4)의 문장은 모든 자질들이 점검을 받게 되어 실제와는 달리 정문으로 잘못 판명되어지기 때문이다.

Chomsky(1995)는 there은 굴절소에 내제된 EPP의 강 자질은 점검하지만 합치(convergence)를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격 자질과 phi-자질들과 같은 굴절소의 비해석성([-Interpretable])자질들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⁴⁾ 따라서 (4)에서 허사 there이 격이나 phi-자질을 점검할 수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점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허사 there은 격이나 phi-자질 중 어떤 것이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둘 다 결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에서 허사 there이 단지 격만 지닌다고 가정한다면, 합치를 위해 제거되어야 하는 비해석성 자질은 굴절소의 phi-자질만이 점검되지 않은 채 남게 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4)에서 John의 phi-자질은 해석성 ([+Interpretable]) 자질이기에 때문에 굴절소의 phi-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내현적(covert)으로 인상 되어 굴절소에 남겨진 비 해석성 자질을 점검하게 되어 (4)의 문장이 정문으로 잘못 판명되게 된다. 따라서 허사 there이 격을 지닌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잃게 된다.

반면에 there이 단지 phi-자질만 보유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래 (5)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형식상의 주어인 there이 아닌 제휴어 a lot of students와 동사와의 일치관계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 (5) *there seems to be a lot of students in the classroom.

허사 there은 지정어-핵 관계에서 굴절소의 phi-자질을 점검하고 제거한다. 허사 there의 phi-자질 또한 비해석성 자질이기에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기 점검관계 하에서 제거된다. 비해석성 자질인 굴절소의 격 자질은 제휴어 a lot of students의 인상에 의해 제거 될 수 있지만 a lot of students의 phi-자질은 해석성 자질이기에 때문에 점검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5)의 도출은 합치되어 정문으로 판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허사 there이 phi-자질만 가지고 있다는 가정으로 (5)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됨으로 허사 there이 phi-자질만 있다는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된다.

4) Chomsky(1995)는 합치된 문장의 도출을 위해서는 비해석성 자질들은 반드시 점검되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해석성 자질들이 점검되지 않고 남게 되면 그 문장은 파탄된다고 주장한다.

3.2 범주자질의 점검요건

3.1의 논의 결과로 허사 there은 격 자질과 phi-자질 중 어떠한 자질도 지니고 있지 않다고 Chomsky(1995)는 주장한다. 대신에 허사 there은 별도의 형식자질(formal features)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단지 범주자질 [D]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확대투사원리는 격 자질과 phi-자질과는 상관없이 단지 범주자질 [D]만이 EPP자질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EPP가 격과 phi-자질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EPP는 굴절소의⁵⁾ 강한 [D] 자질만을 점검하기 위한 운용이라고 Chomsky(1995)는 주장한다. 그는 격과 phi-자질 둘 모두를 지닌 영어의 또 다른 허사 it과는 달리 허사 there은 EPP를 충족하기 위한 범주자질 [D]만을 보유한 순수한 허사라고 주장한다.

Jonas(1996)는 범주자질인 [D]-자질과 관련하여 ‘분리 굴절 핵 가설(Split Infl Hypothesis)’의 관점⁶⁾에서 Chomsky(1995)와 유사한 논의를 전개한다. 즉, 확대투사원리는 [D]-자질의 점검요구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D]-자질은 일치소(AgrS) 핵에 내포되어 있으며 일치소구(AgrSP)의 지정어 위치에서 [D]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한정사구(DP), 명시적 명사구(specific NP), 또는 허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시제소 T는 단지 N-자질만을 포함하여 시제어구(TP)의 지정어 위치에 부정 명사구(indefinite NP)만이 허용되어지며, 허사는 어떤 명사자질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순수하게 [D]-자질의 어휘적 표현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단지 N-자질만을 포함하는 시제소 T는 시제어구의 지정어 위치에서 허사there을 점검할 수 없음으로 there은 이 위치에 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Chomsky(1995)의 확대투사원리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게, Jonas(1996) 또한 허사를 [D]-자질의 어휘적 표현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두 이론의 약간의 차이점은 Chomsky(1994)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기능범주인 일치소(Agr)의 제거를 주장하고⁷⁾, 그 이후에 일치소 대신에 핵 T0가 강한 [D]-자질을 점검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Jonas(1996)는 TP의 지정어 위치는 허사가 점검할 수 있는 [D]-자질을 점검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실상 Chomsky(1995)의 ‘일치소가 없는 이론

5) Chomsky(1995)는 굴절소를 핵 T0로 표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핵을 지칭한다.

6) 분리 굴절 핵 가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onas(1996)과 더불어 Pollock(1989)의 이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7) 기능범주인 일치소(Agr)의 제거와 관련된 논의는 Chomsky(1994)를 참조하길 바란다.

(Agr-less theory)’에서 T0의 지정어 위치는 Jonas(1996)가 주장하는 일치소의 지정어 위치에 해당되어 두 위치는 동일한 위치라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두 이론의 핵심은 허사 there은 단지 [D]-자질만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3.3 EPP의 범주자질 특성

격과 phi-자질이 부재한 단지 범주자질 [D]만을 지닌다는 Chomsky(1995)의 이론을 수용한다면, 허사 there이 동사 핵 V가 굴절소 I로 인상되어 형성된 ‘굴절소-동사 핵 [Infl-V head]’의 격과 phi-자질과 같은 비해석성 자질들을 제거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허사구문에서 합치를 위해 사실상 요구되는 제휴논항(associated argument)의 인상이 허사 there을 표적으로 하여 비 해석성 자질 점검을 위해 허용되어진다. 이러한 일반화는 확대투사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설득력 있는 세 가지 적절한 결과를 야기한다.

첫째로, 허사 there이 격과 phi-자질이 없다면, 아래 (6)과 같은 허사구문에서 형식상의 주어가 아닌 제휴어와 일치를 이루는 특이한 일치범례 현상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 진다. 즉, 허사구문에서 동사가 형식상의 주어가 아닌 제휴어와의 일치 관계는 합치를 위해 요구되는 비 해석성 격 자질과 phi-자질을 점검하기위해 제휴어가 허사로의 인상됨으로서 형식주어가 아닌 제휴어와의 일치가 일어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6) a. There is/*are a car blocking my way.
b. There *is/are cars blocking my way.

둘째로, 확대투사원리의 정의는 기존의 ‘격 전이 분석 (Case Transmission Analyses)’에서는 설명 할 수 없었던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7) There is a car/*the car blocking my way.

만약, 단지 범주 자질 [D]만을 가지고 있는 허사 there이 EPP를 만족하기위해 T의 강한 [D]자질을 점검하고 제거한다면, 전체 허사 there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한 [D]자질은 한정사구(DP)라기보다는 명사구(NP)에 의해 점검되어짐을 알 수 있다.⁸⁾ 따라서 허사구문에서 제휴어는 범주자질 [D]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사구(NP)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7)의 한정성 효과에 대

한 적절한 대답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로, EPP의 정의는 이중 허사구문(double-there constructions)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 할 수 있다.

- (8) *there₁ is believed [there₂ to be a car blocking my way].

(8)의 비문법성은 [D]의 강한 명사지질이 [D]라기보다는 [N]에 의해 점검된다면 적절하게 설명 될 수 있다. 제휴어 a car의 자질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내포된 T로 부가 될 수 있고, 동시에 [N]이 there₂로 인상되어 [D N Exp]를 형성하여 내포문에서 요구되는 자질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위절의 there₁의 강한 자질들은 논리형태에 도달 할 때까지 점검될 수 없어 이 도출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⁹⁾ 따라서 Chomsky(1995)의 범주자질 점검을 위한 확대투사원리에 의하면 허사 there은 범주 자질 [D]만을 가지고 있으며, EPP의 충족은 T의 강한 범주 자질 [D]-자질에 기인한다.

허사구문에서 there이 격과 phi-자질이 제거됨으로 제휴논항의 격 점검 방법이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답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제휴어가 도출과정에서 점검되지 않은 자질을 가진 채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논항 영역(A-domain)내에서 다중 wh-구(multiple wh-phrases)는 단지 하나의 wh-구 만이 자질점검을 받고 나머지 wh-구는 점검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는 일부 분석에 근거한다. 마찬가지로 허사구문에서 there이 EPP충족을 위한 T의 강한 [D]자질을 점검하고 제휴어는 자질점검이 되지 않고 남게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¹⁰⁾

두 번째 해답은 Belletti(1988)와 Lasnik(1992, 1995)에 의해 제안되고 발전 된 ‘본유적 부분 격 분석(inherent Partitive Case Analysis)’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제휴어의 격 점검은 계사(copular)인 be동사나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물론 Belletti와 Lasnik의 이론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Belletti는 제휴어는 의미역 표지(θ-marking)를 바탕으로 하는 핵-보어 관계(head-complement relation)에서 본유

8) [D]는 명시성(specificity)의 소재지(locus)로 간주된다. 즉, 명시성은 한정성을 내포함을 알 수 있다.

9) Chomsky는 강 자질이 논리형태까지 점검되지 않고 남게 되면 그 도출은 파탄된다고 주장한다.

10) 상기 주장은 최소주의의 틀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최소주의에서는 격 자질은 비해석성 자질이기에 때문에 접합점 층위(interface level)에서 합치를 위해 반드시 점검 된 후 제거되어야 한다. 만약 제휴어의 격 자질이 음성형태에서 점검되지 않고 남게 된다면, 그 도출은 파탄되어야 한다.

적 부분 격이 할당되는 반면에, Lasnik은 제휴어의 격은 최소주의 이론에서와 같이 지정어-핵의 구조적관계를 바탕으로 할당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격 할당과 관련된 Lasnik(1995)의 이론에서는 본유적 격(partitive Case)은 대격과 주격이 점검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정어-핵 관계에서 허가된다. 즉, 본유적 격은 격 점검 방식에서 예외적일 수 없고 본유적 격을 포함한 모든 격은 굴절 핵에 대한 지정어-핵 관계의 음성형태 구조에서 대칭적으로 할당된다. 따라서 제휴어의 격 점검과 관련한 Lasnik(1995)의 이론은 허사구문에서 모든 자질이 점검을 받게 되어 최소주의 이론에 부합하며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IV. 확대투사원리의 문제점

4.1 자질점검이론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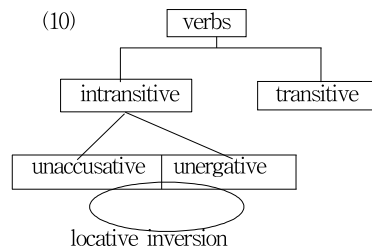
확대투사원리의 이해를 위해 위치도치구문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Jang(1997)의 연구를 요약 및 분석하고 EPP와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Jang(1997)은 아래 (9)와 같은 위치도치구문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 (9) a. A fountain stands in the garden.
b. In the garden stands a fountain.

첫 번째로 위치도치구문의 특성으로 위치 도치는 (9)에서처럼 수의적이라는 점이다. (9a)는 전형적인 어순을 보이지만, (9b)은 위치 전치사 구인 in the garden이 [PP V NP]라는 어순을 형성하며 동사를 사이에 두고 도치가 일어난다.

두 번째 특성으로 위치 도치는 모든 형태의 동사에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Jang(1997)은 (10)의 그림에서와 같이 위치 도치는 비대격동사의 한 부분과 소수의 비능격 동사(unergative verb)와 함께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위치 도치를 허용하는 비능격 동사는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구(PP)와 결합했을 때 비 대격 동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¹¹⁾

11) Jang(1997: 105)은 대격동사가 직접목적어를 취할 경우 위치 도치는 불가능하며, 반면에 일부 능격동사는 제한된 환경에서 위치 도치를 허용한다고 제안한다. 아래 (i)과 (ii)에서 각각의 경우를 볼 수 있다.
(i) a. *Into the room rolled the ball John.
b. *Down the street walked the old nanny her



Jang(1997)은 아래 (11)의 예문에서처럼 비대격 동사만이 위치 도치를 허용하는 비대격성 제약(unaccusativity restriction)의 존재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 (11) a. *Through the wedding band shot a marksman.
b. Through the wedding band shot a bullet.

(11a)에서 동사 뒤에 위치한 논항은 발사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자(agent)인 반면에, (11b)에서는 발사행위를 경험 또는 겪게 되는 대상역(theme)이다. 따라서 (11a)가 아닌 (11b)의 동사만이 비대격 술어로서 위치도치를 허용한다.

세 번째 특성은 아래 (12)의 경우처럼 위치 도치는 주로 단순 시제 동사에 제한되어 허용되는 반면에 복합시제동사의 경우는 위치 도치가 불가능하다.

- (12) a. *Into the opera house had raced Harpo.
b. *In has come John.
c. *In his dreams might lie the seeds of future realities.

네 번째로, 위치 도치는 주제화(Topicalization)와 연관되어¹²⁾ 단지 주절(root clause)에서만 일어난다는 점이다.

- dog.
(ii) a. Into the room waltzed the troll.
b. Out of the barn ran a horse.
c. Out of the house strolled my mother's best friend.

12) Branigan(2000)은 주절에 내포된 예외적 격 표시 구문(ECM)에서는 많은 화자들이 위치도치구문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예는 V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13) a. *She claims that in the garden stands a fountain.
b. *He thought that over the fence is the outside world.

EPP의 정의와 관련한 마지막 특성으로서 도치된 전치사구(PP)가 주어위치에 있을 때 마치 주어처럼 행동한다는 점이다. 아래(14)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명사구 주어처럼 'that-흔적 효과(that-trace effect)'를 보여주며, 부가의문문을 형성하고, 또한 인상(raising)을 허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15)의 예문에 나타난 것처럼, 위치 전치사 구는 의문문을 형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문사 구인 CP의 지정어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일반적인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와 다른 구문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 (14) a. It's early in 1661 that we all believe t took place a general election.
b. *It's early in 1661 that we all believe that t took place a general election.
(15) a. Down the hill rolls John.
b. ?Is it true that down the hill rolls John?
c. *Did down the hill rolls John?

중요한 사실은 과연 도치된 위치도치구가 도출의 어떤 단계에서 시제구의 지정어 위치에 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도치된 요소가 추가로 이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은지는 EPP와 관련된 본 연구의 논의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상기 다섯 가지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제한적인 환경에서 전치사구가 시제구의 지정어 위치에 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명사구 NP에 의해 자질점검을 받는 T의 EPP 자질 점검은 도치구문에서는 어떻게 점검되는지 의문으로 남게 된다. 즉, 도치된 전치사구가 명사구 NP와 같은 강한 [D]자질을 보유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4.2 자질점검이론 재고

도치구문의 EPP자질점검 여부와 관련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치 전치사구가 시제구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동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Collins(1996)는 위치도치를 유도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안하는데, 그 첫 번째로 전치사구 PP는 시제구 TP의 지정어 위치로 선도

(pied-piped)되어 지고 T의 EPP 자질은 아래 (16a)에서처럼 전치사구의 보어인 the house의 [D]-자질과 점검관계를 이룬다고 제안한다. 즉, EPP와의 자질점검은 전치사구의 보어인 DP의 자질이 PP로 자질침투(feature-percolation)를 통해 T의 EPP자질을 점검하게 된다.

- (16) a. From inside the house comes the noise.
b. In which car did She hide the ring?
c. *From inside the house come the noise.

그 근거로 (16b)에서 wh-이동(wh-movement)이 전치사구인 PP를 선도할 수 있고, 전치사의 보어인 wh-구(wh-phrase) which car의 wh-자질은 자질침투를 통하여 강한 Q-자질(Q-feature)과 점검관계를 이루는 것에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Collins는 스스로 이러한 자신의 주장에 관련하여 비문인 (16c)에서 볼 수 있듯이 왜 동사가 주어위치에 놓인 전치사구의 보어인 the noise와 일치를 하지 못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자인한다.

Collins가 제시한 두 번째 가능성으로 T의 EPP자질과 점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질집합을 단순히 DP의 [D]-자질에서 다른 범주 자질에 이르기까지 확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 아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급 구문, 분사구문, 전치사 구문 등이 DP-보어가 없는 위치구문처럼 TP의 지정어 위치에 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17) a. Far more significant than all this is the new way of life.
d. Taking turns, as usual, were his two sisters.
c. Enclosed is my check for \$5.00..
d. Calm on the other side stood a boy.
e. In the garden lay the old lady.
f. Up jumped a frog.

(17a,b)의 예문들은 be동사 주위의 구 요소들의 위치가 상호 바뀐 경우이고, (17c,d)의 경우는 분사구문, 형용사구, 그리고 비교구문이 비 계사(non-copular) 동사를 사이에 두고 상호 도치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17e,f)은 전치사구가 내부에 EPP 자질을 점검할 가능성이 있는 DP-보어를 수반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¹³⁾

13) 분명한 것은 Collins(1996)가 제시한 자질침투로는 상기 (18)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전치사구내에 DP-보

V. 대안제시와 남겨진 문제

5.1 Branigan(2000)의 자질점검 이론

Branigan(2000)은 이동과 결속이론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치구문이 EPP자질점검을 이행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논의의 초점은 결속이론과 이동의 본질을 설명하지만 EPP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는 위치도치구문에서 결속이론을 충족하기위해서 외현적(overt) 이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내현적 이동만이 도치구문에서의 결속관계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많은 영어화자들 사이에 내포문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구문의 도치가 가능하고, 아울러 내포된 예외적 격 표시 구문에서도 위치구문의 도치가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도치구문에서 도치된 주어와 주절 동사구에 포함된 대용사(anaphors)를 결속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18) The photos [VP showed [IP behind this very hedge to have been hiding Jill and Tony]] during each other's trials].

이미 내포문의 지정어 위치에 EPP를 충족하는 전치사구가 위치하였으므로 내포된 예외적 격 표시구문에서 하위의 명사구가 이 지정어 위치로 이동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위 절에 포함된 대용사를 적절하게 결속하기 위해서는 Jill and Tony의 자질이 내현적으로 이동하여 상위절의 대용사를 결속한다고 주장한다.

Branigan(2000)은 위치도치 구문에서는 결속이론 (C)의 위반이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즉, 위치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대명사와는 달리 형용어구는 위치도치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도치되지 않은 예외적 격 표시 구문의 주어로서 형용어구가 왔을 경우에, 뒤따르는 부사구문의 한 부분으로서 고유명칭(proper names)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위치도치가 일어난 예외적 격 표시구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형용어구가 주절에 위치한 동사구 부가어구에 포함된 지시표현(R-expression)과 공지표(coindex)를 이룰 수가 없다.

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Collins(1996)는 [D]-자질 점검 가설을 배제하고, (18-20)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EPP는 어떠한 범주 자질에 의해서도 점검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19) a. *The evidence proved [IP [DP the son of a bitch]i to have crouched under the desk] after Johni's mother had testified].
b. *The evidence proved [IP under the desk to have crouched [DP the son of a bitch]i] after Johni's mother had testified.

도치된 예외적 격 표시구문의 주어는 도출이 합치되기 위해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는 격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 격 자질은 내포문 내에서 점검되어 질 수 없고, 도치되지 않은 예외적 격 표시 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동사에 의해 점검되는 것처럼 주절에서 그 격 자질을 점검 받아야한다. (19a)의 경우는 내포문의 주어인 형용어구인 the son of a bitch가 격 점검을 위해 상위 절로 내현적으로 이동하든 외현적으로 이동하든 상관없이 주절에 위치한 고유명칭인 John을 성분통어하게 되어 결속이론 (C)을 위반하여 비문으로 정확하게 판정된다. 반면에 (19b)의 경우는 이미 내포문의 지정어 위치에 EPP를 충족하고 있는 전치사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로 형용어구인 the son of a bitch의 외현적 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형용어구가 상위절에 위치한 고유명칭인 John을 성분통어 하지 못하게 되어 지시-표현인 John이 결속되지 않아 결속이론 (C)을 충족하게 되어 정문으로 잘못 판정된다. 그러나 내현적 이동의 경우에 논리형태에서 구문자체가 이동하든 자질만이 이동하든 간에 형용어구가 주절 동사구의 요소들을 성분통어 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John을 성분통어하게 되어 결속이론 (C)을 위반하게 되어 정확하게 비문임을 판정 할 수 있다. 이동의 특성을 결속관계 설명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Branigan(2000)의 이론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Chomsky(1995)과는 달리 위치도치된 전치사구가 일반 명사구와 마찬가지로 EPP자질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다.¹⁴⁾

5.2 Chomsky(2000)의 이동의 비 대칭적 운용

최대투사인 XP-이동과 기능 핵으로서 X0-이동에 대해

- 14) 따라서 Chomsky(1995)의 [D]-자질 점검을 위한 EPP에 대한 정의와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기존의 EPP에 대한 재고가 요구됨을 추정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homsky(2000)는 다양한 연구에서 제기된 기존의 EPP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고하여 새로운 정의를 시도한다.

Chomsky(2000)는 비 대칭적 운동을 제안한다. 즉, 모든 기능투사는 XP-이동에 의해 점검되어야 할 비해석성 일치소 자질(Agr-features)을 가지고 있지만, 핵 이동은 통사부가 아닌 비해석성 자질들을 지니고 있지 않는 음성형태의 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XP-이동은 자질점검을 통한 도출의 과탄을 막기 위해 외현적 통사부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비대칭 관계를 주장한다.

음성형태에서 일어나는 핵 이동과는 달리, 외현적 통사부의 운용인 XP-이동은 자질을 근거로 한 Chomsky(1995)의 EPP자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EPP는 굴절소(Inf)의 강 자질에 의해 실현된다고 주장한다.¹⁵⁾

- (20) a. Through the half-opened window
drifted the mingled smell of wood
smoke and freshness.
b. In the church sang a choir.
c. In this book are merged the result of
fresh interests, fourteen years of
research and a fruitful collaborations.

그러나 EPP의 정의와 관련된 이러한 주장들은 VI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자질점검과 관련한 문제점에 직면한다. 즉, (20)에서 굴절소의 지정어 위치에 점검 받을 수 있는 자질을 지니지 않은 전치사구(PP)가 위치하여 EPP자질을 점검하게 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Chomsky(1995)는 EPP자질을 [D]자질로 간주하여 시제소 T에 범주자질인 [D]의 강 자질(strong features) 점검을 위해 확대투사원리가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homsky(1999, 2000)에서는 시제소 T의 [D]자질을 제거하고 인칭자질([person feature])과 연계한 EPP자질을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제소 T가 EPP자질을 가지고 있고 이 자질은 비 해석성 자질이기에 때문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으로 삭제를 위해 TP의 지정어 위치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EPP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기능 핵은 지정어를 가져야 한다고 EPP를 재 정의하여 (23)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한다.¹⁶⁾ 결국 확대투사원리는 강한 [D]-자질 점검을 위한 자질점검현상이 아닌 초기생성문법이론에서처럼 ‘TP의 지정어 위치는 외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Lasnik(2001)과 Chomsky(1999, 2000)에서 확대투사원리를 구조적 요건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확대투사원리가 출현할 당시의 원점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일부학자는 EPP를 의미적 요건으로 주장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확대투사원리의 존재와 본질, 그리고 보편문법에서의 구조적 역할에 대한 의문점을 가중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대투사원리의 개념으로 TP의 지정어 위치는 외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여 제안했으나 확대투사원리의 설정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확대투사원리를 통사운용에서 제거하는 방안도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겠다.

V. 결론

Chomsky(1981)의 구 구조 규칙(Phrase Structure Rule)으로서 “모든 절은 주어의 필요로 한다”라는 확대투사원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어왔으며, 이론상의 변화를 겪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다. Lasnik & Chomsky(1991)의 “원리 및 매개변인 이론(Principles and Parameters)”과 Chomsky(1993)의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확대투사원리가 격 점검과 일치(Agreement)를 위한 Phi-자질점검을 위한 요건으로서 강 자질인 시제소 T의 지정어 위치로 [DP]를 유인함으로써 확대투사원리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본 연구에서 소개된 허사구문에서 격과 의미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자료분석을 통해 더 이상 이론적 의미를 부여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Chomsky(1995)는 격 자질점검 대신에 EPP자질을 범주자질인 [D]자질로 간주한다. 따라서 범주자질 [D]는 강 자질이기에 때문에 EPP를 충족하기위해 굴절 핵의 지정어 위치에 논항이동으로 확대투사원리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허사구문과 위치도치구문 등에서 범주자질 [D]로서 EPP자질은 전치사 구가 EPP를 충족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대투사원리는 단순히 격 자질 점검, 일치 점검, 그리고 [D] 자질점검 등에 의해 유발되는 효과가 아님을 입증하였고, 대안으로 TP의 지정어 위치는 외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물론 최근 보편문법에서 확대투사원리의 구조적 역할에 대한 의문점이 가중되고 있으며 EPP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EPP자체를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15) Lasnik(1995) 역시 목적어의 외현적 이동은 일치소(Agro)에 내재된 EPP의 요구에 의해 일어난다는 주장을 한다.

16) Lasnik(2001) 또한 Chomsky(2000)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EPP의 개념으로 구의 굴절 핵은 반드시 지정어를 가져야 한다는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참고문헌

- [1]. Belletti, A. (1988). "The Case of Unaccusatives," *Linguistic Inquiry* 19, 1-34.
- [2]. Branigan, P. (2000). Binding Effects with Covert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1: 353-357.
- [3].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4].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The View from Building 29*. K. Hale & S. Keyser (eds), MIT Press.
- [5]. Chomsky, Noam (1994). "Bare phrase structure ." I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5: 1-51. Cambridge Mass.
- [6]. Chomsky, N. (1995). Categories and transformations. In *The minimalist program*, 219-394. Cambridge, Mass: MIT Press.
- [7]. Chomsky, N. (1999). Derivation by phas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Cambridge, Mass.: MIT Press.
- [8].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ed by Roger Martin, David Michael, and Juan Uriagereka,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9]. Chomsky, N & H. Lasnik (1991). To appear in J. Jacobs, A. van Stechow, W. Sternefeld, and T. Vennemann (eds)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Walter de Gruyter, Berlin.
- [10]. Collins, C. (1996) *Local Economy*, Cambridge: MIT Press.
- [11]. Jang Y.-J. (1997). *Tense and Complementizer Feature-Checking*. Hankuk Publisher.
- [12]. Jonas, D. (1996). "Clause Structure and Verb Syntax in Scandinavian and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 [13]. Joo, C.-W. (2003). A Study on Covert Movement, *STEM Journal* 3 (2)
- [14]. Lasnik, H. (1992). "Case and Expletives: Notes toward a Parametric Account," *Linguistic Inquiry* 23: 381-405.
- [15]. Lasnik, H. (1995). "Case and Expletives Revisited: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nguistic Inquiry* 27: 615-634.
- [16]. Lasnik, H. (1996). Levels of Representation and The Elements of Anaphora. To be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Binding and Atomism," Holland Institute of Generative Linguistics, Leiden. University of Connecticut.
- [17]. Lasnik, H. (2001). A Note On the EPP. *Linguistic Inquiry* 32: 356-362.
- [18]. Pollock, J.-Y.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s Inquiry* 20: 365-424.

저자소개



주 치 운

1988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문학사.

1990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문학석사.

2001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문학박사.

현재 :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
경영과 부교수.

관심분야 : 영어통사론, 의미론,
영어교육, 언어테이
타 분석

Email: cwjoo@inhac.ac.kr